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제사장 직분을 회복함

(토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5

제사장 직분의 두 계통

성경: 뵤전 2:5, 9, 계 5:10, 출 29:1, 4, 창 14:18-20, 히 13:15, 2:12

I. 성경에서 제사장의 기본적인 의미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 A. 성경에서 제사장이 처음 언급된 것이 제사장의 원칙을 세운다.
- B. 성경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멜기세덱을 언급할 때였다. 그는 왕이었고, 왕의 신분을 지닌 제사장이었다 — 창 14:18-20.
- C. 성경에서 제사장 직분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 속한 무언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 1. 멜기세덱은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 속한 무언가를 아브라함에게 공급하였다.
 - 2.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누림이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공급되시어 우리를 보양하고 신선하게 하고 부축하고 위로하고 강화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 D. 우리가 오늘날 진정한 제사장이 되고자 한다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람 안에 공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E. 만일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에게 공급하는지를 모르는 채 하나님을 섬기는 법만을 안다면, 제사장 직분에 관한 우리 가운데의 상황은 매우 빈약할 것이다.

II. 제사장 직분의 두 계통은 거룩한 제사장 직분과 왕들의 제사장 직분이다 — 계 5:10, 뵤전 2:5, 9.

- A. 거룩한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계통으로 예표된다. 아론의 계통은 거룩한 계통이다 — 출 29:1, 4, 뵤전 2:5, 히 2:17.
 - 1.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에서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는 것이다 — 뵤전 1:16.
 - a. 거룩한 계통은 속된 것들로부터 신성한 것들로 분별되고 주님께 사용되도록 분별된 계통이다.
 - b. 거룩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곧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도록 분별된 이 들이다 — 뵤전 2:5.
 - 2. 제사장 직분의 첫 번째 계통 —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방면인 거룩한 제사장 직분 — 은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기 위해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주로 속죄제물과 관련된다 — 히 10:12.
 - a.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 아론의 일로 예표된다 — 히 1:3, 7:27, 9:12, 28.
 - b. 그리스도는 죄들을 처리하기 위한 한 희생 제물로 그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써 죄를 없애셨다 — 히 9:26, 10:10-12.
 - c.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부분이 아니라, 죄의 문제 때문에 이후에 더해진 것이었다 — 히 1:3, 요 1:29, 롬 8:3.

- B. 왕들의 제사장 직분은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예표된다. 멜기세덱의 계통은 왕의 신분을 지닌 왕가의 계통이다 — 벰전 2:9, 창 14:18, 히 5:10.
1. 제사장 직분의 두 번째 계통 — 멜기세덱으로 예표되는 제사장 직분의 방면인 왕들의 제사장 직분 — 은 우리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 히 5:10, 7:1-2.
 2.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것이다 — 시 110:1, 4, 히 1:3, 8:1.
 3. 왕의 신분을 지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공급해 주시며,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신다.
 4. 오늘날 우리의 체험에서 왕의 신분을 지닌 제사장들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에게서 와서 아브라함을 만나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이들이다 — 창 14:18-19.
 5. 우리가 실질적인 교회생활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여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표현이 될 때, 참된 제사장 직분이 나타나게 된다 — 벰전 4:10, 고후 3:18.
- C.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왕의 존귀를 지닌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룬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죄를 없앴고, 왕의 존귀를 지닌 제사장 직분은 우리의 은혜이신 하나님을 가져왔다 — 히 1:3, 4:16.
- D. 한 면에서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가져간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왕들이신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 벰전 2:5, 9.
1. 거룩한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왕들이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인다.
 2.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과 왕의 신분을 지닌 제사장들로서 양방향으로 가고 온다.

III. 거룩한 제사장 직분은 영적인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 벰전 2:5.

- A.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거룩한 제사장들이 드리는 영적인 희생 제물들은 (1) 예표인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들, 예를 들면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레 1-5장)의 실재이신 그리스도, (2) 우리의 복음 전파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드러진 죄인들(롬 15:16), (3) 우리의 몸, 우리의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들(롬 12:1, 히 13:15-16, 빌 4:18)이다.
- B. 영적인 희생 제물은 특별히 번제물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포함한다. 우리는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체험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정도까지만 그리스도를 우리의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 레 1:6, 9, 6:8-13.
- C. 하나님은 희생 제물이 아닌 일, 곧 완전히 제물이 아닌 일은 어떤 것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는가?”이다.
- D. 거룩한 제사장 직분 안에 있는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은혜, 곧 변함없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 — 히 13:15.

1.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찬양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2.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신다. 따라서 우리 역시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 히 2:12.
 - a. 그분과 우리, 우리와 그분은 연합된 영 안에서 함께 아버지를 찬양한다 — 고전 6:17.
 - b.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하시며, 우리는 우리의 영에 의해 그분의 영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한다.
 - c.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최상의 희생 제물이다 — 히 13:15.

IV. 왕의 존귀를 지닌 제사장 직분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미덕들을 널리 알린다 — 벰전 2:9.

- A. 미덕(벰후 1:3)은 우리가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성한 생명의 에너지와 힘이다. 미덕들(벰전 2:9)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탁월한 것들이다.
- B. 선전하는 것은 널리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복음으로서 널리 선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 벰전 2:9.
 1. 어둠은 죽음 안에 있는 사탄의 표현이자 영역이고, 빛은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이자 영역이다 — 요일 1:5.
 2. 하나님은 어둠이라는 사탄의 죽음의 영역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출하셔서, 빛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 행 26:18, 골 1:13.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아론과 멜기세덱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와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이 두 부분은 제사장 직분의 두 계통을 보여 준다. 첫째 계통은 아론을 시작으로 한 것이고, 둘째 계통은 멜기세덱을 시작으로 한 것이다. 아론을 시작으로 하는 제사장의 계통은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서,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멜기세덱을 시작으로 하는 계통은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와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이 제사장 직분의 두 계통에는 두 방향, 곧 두 통로가 있다. 첫째 계통에서 그 방향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둘째 계통에서는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향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도 이러한 두 방향이 있는 두 계통이 있다. 그분은 아론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아론의 계통에 따르면, 사람이신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셔서 사람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

출애굽기 28장 12절과 29절을 읽어 보자. “그 두 보석을 이스라엘 자손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에봇의 어깨받이 위에 달아라. 아론은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 위에 두어서 여호와와 그들을 기억하게 해

야 한다. ...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관결 가슴받이(흉패)를 가슴에 달아, 여호와가 그들을 늘 기억하게 하여라.” 대제사장인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이름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게 했다.

또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자. “그리고 살렘 왕 벨기세텍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는 아브람에게 축복하며 말하였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브람은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다.” 벨기세텍은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을 했던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것은 아주 흥미롭다. 그는 오직 이 두 가지, 곧 주님의 상 집회를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바로 그것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우리는 제사장 직분의 두 계통을 발견하게 된다. 5절에서는 아론의 계통을 보고, 9절에서는 벨기세텍의 계통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5절) 이것은 아론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가져간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벧전 2:9) 2장 5절에서 거룩한 제사장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가져가고, 9절에서 왕인 제사장은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선포하고 보여 줄 것을 가져온다.

사람의 본성이 거룩해야 함

제사장 직분에는 사람의 본성과 신성한 본성이 있다.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육체 되심에 속한 것이다. 제사장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어야 한다. ... 신성과 연합되기 위하여 인성은 거룩해야 한다. 본래 인성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인성은 신성한 본성과 연합되어야 하므로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헬리어로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 분별된다는 의미이다. 제사장 직분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세속적인 일에서 분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제사장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라면 결코 그분을 섬길 수 없다. 신학교나 성경 연구원이나 성서 대학에 간 후에야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것은 다만 우리를 ‘직업적인 제사장’으로 만들 뿐 실질적인 제사장들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참된 제사장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일에서, 모든 세속적인 일에서 분별되어야 한다.

첫째로, 우리의 말이 분별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대화는 모든 통속적인 것에서 분별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과 관념, 사상까지도 분별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세속적이어서는 안 되고 분별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일에서 분별되지 않는다면 제사장 체계는 파산할 것이다.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까지도 거룩해야 한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돈을 쓰는 방법을 보면, 그들은 제사장 직분과는 관계가 멀다. 제사장은 돈을 쓰는 방법에서도 분별되어야 한다.

여러 차례 형제의 집이나 자매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나는 그 집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어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다. 그 집은 분별되어 있지 않았다. 19세기에 A. J. 고든과 S. D. 고든이라는 두 명의 고든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둘 중 하나가 주님을 섬기는 청년으로서 새 집을 샀다. 이사를 하고 모든 가구를 완전히 갖추어 놓고 나서 그의 새 집을 아버지께 구경시켜 드렸다. 고든은 아버지가 집을 보고 나자 그 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훌륭하다고 하면서, 낯선 사람이 이 새 집에 들어오면 마귀의 아들의 집이라고 하겠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집이라고 하겠는지 그에게 물었다. 그의 아버지는 바로 그 집이 분별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켰던 것이다. 그 집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었다. 많은 세상 사람의 집과 똑같았다. 아무런 분별도 없고 거룩함도 없었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 형제자매의 옷 입을 방식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라고 나에게 물어 오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양식으로부터 분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제사장 직분을 갖지 못할 것이다. 제사장 직분은 거룩한 분별을 가져야 한다.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히브리서 5장에 따르면 대제사장 자신에게도 필요가 있다. 그도 동일한 연약함에 싸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베풀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필요와 연약함에 공감할 수 있다. 제사장 직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모든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계속 가야 한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려면 우리는 분별될 필요가 있다. 세속적인 것은 다 주님과 교통을 방해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덮고 주님의 임재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너울과 같은 것이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머물 수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분별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를 덮고 주님의 임재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세속적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너울로 가려진 것이다. 나는 “막힘없이 오 막힘없이”라는 찬송가를 좋아한다. 주님을 접촉하려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있는 것은 다 벗겨져야 할 너울이다. 우리는 그런 특별한 것에서 분별되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매우 크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 주님은 아주 작은 분이시다. 때때로 주님은 한 켤레의 신발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 다투기도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신발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좋아하지 않으신다.

나는 젊었을 때 그렇게 많은 사소한 일들에서 주님께 의해 처리받았다. 영적인 책을 샀다가 그것을 환불해야 했던 적도 있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나가서 그 책을 샀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었다. 나는 “주님, 당신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크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어찌서 이렇게 사소한 일을 관심하십니까?”라고 우겨댔다. 정말 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기도할 수도 없었고, 말씀을 공급할 수도 없었다. 마침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책을 환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에게 이런 체험이 있었으리라고 믿는다. 주님을 접촉하려면 분별되어야 한다. 어떤 일에서 분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 주시도록 주님께 여쭙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안에서 알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므로 제사장 직분의 첫째 방면은 사람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이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같이 우리는 어깨와 가슴에 사람과 사람의 필요를 짊어져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능력과 사랑으로 그들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제사장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두 어깨 위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있는 제사장 옷을 입고 있었다. 열두 지파의 이름을 지

닌 열두 개의 보석은 가슴받이에 붙어 있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필요와 형제들의 필요와 온 교회의 필요를 주님의 임재 안으로 가져가서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기 위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다.

거룩함에서 나오는 왕다움

인간의 본성은 왕다운 신성한 본성과 연합되기 위해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신성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한 우리는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성한 것은 다 왕답기 때문이다. 우리가 거룩하다면 왕답게 되는 것은 쉬운 것이다. 보류하는 것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 완전히 분별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왕답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더 많이 분별될수록 그만큼 더 거룩하고 왕답게 될 것이다.

분별된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문 후 우리는 신성한 것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에서 나오게 된다. 우리는 인간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지만, 신성한 것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에서 나온다. 우리는 왕들인 제사장 체계로서 나온다. 왕답게 되려면 거룩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머문 후 다른 사람들에게 갈 때, 그들은 우리 안에서 신성하고 왕다운 어떤 것을 느낀다. 이것이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나누어 줄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떡과 잔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불신자들에게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왕인 제사장들이 되기 위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믿지 않는 친구들의 이름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가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말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갈 때, 여러 번 주님은 먼저 처리받아야 할 것을 우리 안에서 지적하실 것이다. 만일 주님의 요구에 응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쓸모없게 되며, 제사장 직분에서 해고된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처리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하여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얼마 동안 되풀이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른 후에야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임재로부터 친구에게로 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왕의 직분을 지니고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한 인간으로서뿐 아니라 신성한 존재로서 나아간다. 왕인 제사장들로서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그들 속에 나누어 준다. 그들 속에 나누어 주는 것은 구속의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것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떡과 잔에 속한 것이 될 것이다. 결국은 친구들 중 몇 명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오순절 전 십여 일 동안 베드로는 백이십 명과 함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때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 체계였다. 열흘 동안 그들은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주님께 분별되었다. 그들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주님의 임재 안으로 가져갔다. 열흘 후 오순절날 그들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와서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그때 그들은 왕인 제사장들이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어부로서가 아니라 왕으로 우러러보았다. 베드로가 서서 말할 때 사람들은 무게 있고 신성하며 하늘에 속하고 왕다운 것을 느꼈다. 그는 왕인 제사장이었으며 떡과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공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와서 떡과 포도주이신 하나님의 어찌함을 공급하여 아브라함을 강하게 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매우 지쳐 있었고 굶주려 있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탱해 줄 떡과 포도주가 필요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해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과 함께 왔다. 이것이 왕들의 제사장 직분이다.

제사장들로서 우리의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많은 세속적인 일들에서 우리가 분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그분의 영광으로 적셔질 때, 왕들이인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임재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그때 떡과 잔의 예표이신,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자신을 그들에게 공급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별되고 또 주님의 임재로 적셔져 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도 왕의 신분을 지닌 제사장 체계이다.

거룩하고도 왕의 신분을 지닌 제사장 체계만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음

교회생활에서 우리는 모두 개인적인 생활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집회에서는 왕들이인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 날마다 우리의 필요와 또 모든 형제들과 믿지 않는 이들의 필요를 주님께 가져오기 위하여,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매일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집회에 올 때,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넣어 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거룩하고도 왕의 신분을 지닌 제사장들로서 교회 안에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고도 왕의 신분을 지닌 제사장 체계야말로 오늘날 주님께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라. 거의 모든 믿는 이가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분별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에 갈 때' 왕들이인 제사장들로서 나누어 줄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없다. 그들은 다만 신언자만 바라본다. 모든 사람이 조용히 좌석에 앉아 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아니다. 그들은 앉아서 '좋은' 설교만을 기다리는 평신도들이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가련한 상황이다.

제사장 직분이 회복될 때까지 합당한 교회 건축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 각자는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공과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기 위하여 모든 일에서 주님께 완전히 분별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히 집회에 올 때, 지치고 궁핍한 많은 사람에게 떡과 포도주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가지고 오는 왕들이인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건축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 신언자들은 '실직할' 것이며, 아무 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건축되는 유일한 길이다.

주 예수님은 신언자로서가 아니라 제사장과 왕으로서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신다. 스가라서 6장은 분명히 순이신 그리스도께서 신언자로서가 아니라 제사장과 왕으로서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회복된 성전은 모두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에 의하여 건축되었다.

교회의 건축을 위한 원칙은 오늘날도 똑같다. 신언자 학개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격려하기 위해 온 것과 같이,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우리에게 와서 격려해 줄 신언자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교회의 직접적인 건축은 신언자에게 달려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에 달려 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들과 왕들이 되는 것, 곧 거룩한 제사장 체계와 왕

들인 제사장 체계가 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각처에서 형제자매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사람들에게 왕들인 제사장들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주님께 부르짖을 부담을 가져야 한다.

교회 건축은 어떤 종류의 가르침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 있는 제사장 직분의 두 계통에 의해서 온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도시에서 또 각처에서 한 무리의 믿는 이들이 아론의 계통과 또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살아 있는 제사장들로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일으켜지기를 특별히 기도해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6년, 1권, 제사장 직분, 676-685쪽)*